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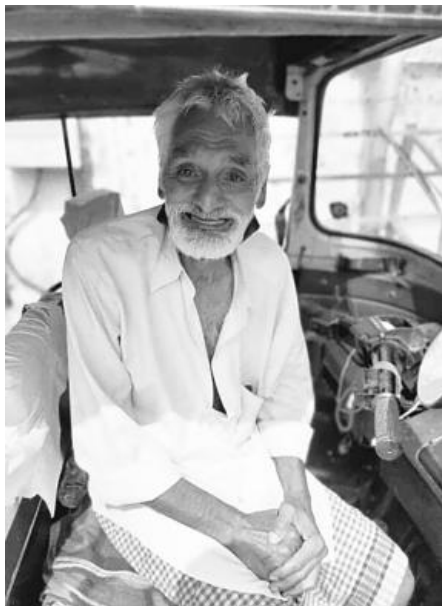
집 팔고 노숙하는 인도 노인 사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 사는 데쉬라즈 지 할아버지는 1년 넘게 낮에는 인력거로 손님을 실어나르고 밤에는 인력거에서 잠을 청한다.

인도 매체 '휴먼스 오브 봄베이'가 최근 전한 바에 따르면 6년전 당시 마흔 살이었던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2년 후에는 작은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에겐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4명의 손주들이 남겨졌다.

할아버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식솔들을 생각하며 인력거를 몰았다.

할아버지는 "작은아들을 화장하던 날, 손녀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냐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손녀를 안심시켰다." 고 말했다.



▲ 가족 부양 위해 인력거에서 생활하는 데쉬라즈 할아버지. 사진=페이스북(Shailendra agrahar)

그 후로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 델리로 손녀를 유학 보냈다. 다른 가족들은 친척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인력거에서 먹고 자며 돈을 벌었다. 그렇게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겨우 1만 루피(약 1,300달러). 이 중 절반 이상은 손녀 학비로 쓰고 남은 4,000루피로 가족을 부양했다.

손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반에서 1등을 한 날 모든 손님을 무료로 대워줬다." 고 뿌듯해했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한 뭄바이 주민은 페이스북에 직접 할아버지를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다. 한 주 만에 240만 루피의 성금이 모였다. 할아버지는 지난 22일 '휴먼스 오브 봄베이'를 통해 감사사를 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대홍수도 막지 못한 사랑



▲ 홍수에도 굴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케이트와 웨인. 사진=theguardian.com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홍수에도 굴하지 않고 뜻뜻하게 결혼식을 진행한 커플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신부인 케이트 포더링햄은 수개월간 준비했던 결혼식이 최악의 기상 상태로 연기될 상황에 놓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케이트와 약혼자인 웨인의 결혼식은 20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아침 결혼식이 열려야 할 뉴사우스웨일스의 작은 마을은 짙은 안개와 넘쳐난 물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녀의 결혼식장으로 낙점된 마을의 작은 다리 일부는 물에 잠기고 말았다.

케이트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결혼식이 열릴 장소로 이동하는데 12시간이 걸렸으며, 약혼자가 도착하기까지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며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준비를 했었지만, 100년 만에 홍수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케이트와 약혼자는 고민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지역 방송국의 도움으로 헬기를 타고 5km 가량을 날아 마을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비록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물에 잠겨 있었고,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지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꿈꿔왔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케이트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대단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 면서 "앞으로 더 큰 도전도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활화산 '용암' 배경 위험천만 셀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클류첵스카야 화산은 해발고도 4,750m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다. 해마다 고도가 계속 바뀔 정도로 활동이 왕성한 이 화산은 올 3월 초부터 또다시 화산 활동을 재개했다.



▲ 활화산에 올라 셀카 삼매경에 빠진 관광객. 사진=유튜브(Россия 24) 캡처

지난 17일, 알렉산드라 고니아에 바등한 무리 등산객은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클류첵스카야 화산으로 목숨을 건 산행에 나섰다. 마침내 분화구와 인접한 화산 테두리에 다다른 이들은 분화구에서 솟구치는 시뻘건 '용암 폭탄' (화산탄)을 배경으로 셀카 삼매경에 빠졌다.

분화구 안을 들여다보는 대담부 쌍함도 보였다. 용암 조각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소

시지를 구워내며 활화산의 열기를 만끽했다.

하루에 50여 명의 관광객이 활화산을 찾았다.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러시아 정부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활화산 투어 금지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화산 관광은 계속되고 있다.

캄차카화산분출대응팀 책임자가 올라 기리나는 "분화는 계속되고, 용암도 계속 흘러나온다. '용암 폭탄' 이 사방에 날려 있다. 분화구에 접근한 이들이 60m 위로 솟구치는 '용암 폭탄' 을 머리에 맞지 않은 건 단지 운이 좋아서였다."

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